

3·1 정신 기리고 민주 성지 질주한다



4일 오전 8시 30분부터 문화전당 5·18민주광장서 폴코스·하프코스 출발

민주화의 성지 광주에서 전국의 마라톤 마니아들의 질주가 시작된다. 호남 마라톤의 역사를 이어가고 있는 제53회 '3·1절 기념 전국마라톤 대회'가 오는 4일 국립아시아문화전당 5·18 민주광장에서 열린다.

3·1절 마라톤은 광주일보와 아시아문화가 주최하며 광주육상경기연맹, 마라톤세상이 공동주관 한다. 또 광주시와 전남도, 광주지방보훈청과 광주시선거관리위원회가 후원한다.

이번 대회는 전년도와 마찬가지로 시외 참가자의 이동 등의 편의를 고려해 3·1절 기념일이 있는 주일요일에 진행된다.

3·1 독립운동의 정신을 기리는 이번 대회는 현대사의 아픔을 함께한 민주와 인권의 도시 광주, 5·18민주화운동의 심장부인 '국립아시아문화전당'(구 전남도청)을 출발해 호남의 젖줄 영산강변을 따라 달리는 코스로 치러진다.

광주 도시를 관통하는 주행로를 지나 영산강변을 달리며 봄기운 충만한 자연과 함께할 수 있는 3·1절 마라톤의 진행 코스는 전국의 마라톤 동호인들 사이에서 '명품코스'로 각광을 받고 있다.

폴코스(42.195km)와 하프코스(21.0975km)로 나눠 진행되는 이번 대회는 8시 30

분 폴코스 출발을 알리는 총성으로 시작된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 5·18 민주광장을 출발한 폴코스 참가자들은 도심의 심장부인 금남로와 충장로, 중앙로를 통과한 후 풍암저수지 사거리를 지나 영산강 길로 향한다.

이어 승촌보를 넘어 나주 노안의 반환점을 돌아 결승점인 상무시민공원으로 스피드를 펼친다.

오전 8시 35분에 출발하는 하프코스는 서창교를 지나 상무시민공원으로 들어오는 코스로 진행된다.

건강하고 안전한 질주를 위해 행사장 곳곳에 구급차가 배치되고 약 2km~2.5km 간격의 주행 코스에는 생수 등의 음료와 간식이 제공된다.

페이스 메이커인 '광화문 마라톤 모임'과 레이스 페트롤 요원인 '노란 자전거'도 마라토너들과 함께한다.

기록에 대한 시상은 측정용 집을 이용해 부문별 1위부터 45위까지 진행된다. 대회 현장에서는 1위~3위까지만 시상식을 치른다.

개인기록은 대회 종료 후 휴대폰 문자 메시지로 통보되며 결승점에 끝난 모든 참가자들에게는 완주메달이 제공된

다.

폴코스 남·여 우승자들에게는 상장·트로피와 함께 50만원의 상금이 부상으로 주어진다. 2위는 40만원, 3위는 30만원, 4위와 5위에게는 각각 20만원의 상금이 수여된다.

하프코스 우승자는 상장과 트로피 및 30만원의 상금이 주어지고 2위와 3위에게는 20만원, 4위와 5위는 10만원의 상금이 각각 주어진다.

20인 이상의 참가 단체를 대상으로 단체상 시상도 이뤄진다. 단체상은 참가자가 많은 단체 순서로 폴코스 2점, 하프코스 1점을 배정, 합산해 순위를 정한다.

1위팀은 50만원, 2위 40만원, 3위 30만원, 4위 20만원, 5위부터 10위까지는 각각 10만원의 상금이 수여된다.

또, 부부가 나란히 대회에 참가해 완주할 경우 '원앙부부상'이 특별 시상되고 전체 참가자 중 53명을 사전추첨해 행운상을, 가장 멋지게 달리거나 끝인한 참가자에게는 포토제닉상을 시상할 계획이다.

한편, 기상청은 대회 당일인 4일 오전 영산강의 기온을 보이겠으나 차츰 흐려져 오후 들어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내 집 같은 편안함!
고객님의 여행과 휴식을 한 차원 높은 수준으로 업그레이드

건강한 우리 음식 한정식
30년 전통의 한정식, 평일 주중 점심 특선 오찬 정식

알찬행사를 위한 연회장
세미나를 위한 영상 시설이 갖춰진 중·소규모의 연회장

광주맛집 since 1981
37년을 고객과 함께 지켜온

1등 맛집 연속 선정
광주의 대표 맛집

정겨운 만남은 품격있는 **금수장호텔 아리랑하우스**

www.geumsoojang.com 예약문의 (062) 525-2111 계림동 홈플러스 건너편